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 영국 보험사, 총사업본부 이주 증가

- ABI(영국보험협회)는 생·손보사들이 비우호적인 조세시스템에 기인하여 그들의 총사업 본부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요청함.
- ABI는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영국 조세시스템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  - 첫째, 영국 조세시스템이 보험사 수익의 변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    - 손보사의 수익에 큰 변동성을 가져오는 자연재해는 사실상 주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만 국한시키는 등 재해 손실을 2년 이상에 걸쳐 이월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  - 둘째, 영국 재무부가 자국으로 유입될 필요가 없는 해외수익에 대해서도 조세를 부과하는 ‘보험사 해외이탈방지 정책’은 오히려 기존 보험사의 경영악화를 가져와 납세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함.
  - 셋째, 영국보험사의 해외영업에 대해서는 조세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    - 해외영업 국가의 조세율과 영국 내 조세율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납세해야 하는 상황임.
- 영국의 비우호적 조세시스템에 의해 Hiscox, Hardy, Brit and Beazley 등의 보험사들은 조세시스템이 우호적인 아일랜드, 네덜란드, 버뮤다로 그들의 총사업 본부를 이주함.
  - 아일랜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손보사와 재보험사들의 사업본부 이주로 인해 자국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  - 아일랜드보험협회는 손보·재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가 2007년 180억유로에서 2008년 262억유로로 45.6% 증가했다고 발표함.
  - 총사업본부 이주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세계 3위의 보험브로커업체인 Willis, 생보사인 Zurich Financial Services, 손보사인 RSA 및 일부 Lloyd의 보험사 등도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.

(Times online 9/15, Financial Times 9/29)